江戶시대 小袖의 문양특성에 관한 연구

이행화, 박옥련*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초빙교수・경성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A Study for pattern appeared on Edo-Kosode

Hang-Hwa Yi・Ok-Lyun Park*・
Instructor, Dept. Fashion Design, Kyung-Sung University
Professor, Dept. Fashion Design. Kyung-Sung University*

1. 서 론

江戶시대는 쇄국정책으로 이전까지 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일본인에게 있어 독자적인 문화를 구축하기 좋은 시대였다.

그리고 지배계층이었던 귀족이나 武家에서 町人에게 문화의 담당자가 옮겨 간 시기였으므로 당시 생겼던 풍속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전개되어 갔다. 대륙문화를 모방해 온 江戶 이전 시대 복식이 격식이나 의례에 따랐던 것에 반해 문화가 정인에게 맡겨진 江戶 시대에는 일본의 풍토, 생활에 적합한 자유롭고 독특한 풍속이 생겨났다.

이러한 경향은 의복에서도 나타나 이전에 속옷으로 사용되던 小袖가 겉옷화 되면서,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되면서 문양이 화려해지고, 帶의 발달로 전체문양의 구도도 새롭게 전개되었다.

본 논문은 江戶시대 小袖에 나타난 문양을 통해 江戶 복식형태의 특징과 장식기법, 문양의 구성방식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방법 및 범위로 이론적인 고찰은 일본복식에 관한 국내외 단행본과 간행물,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하고, 실증연구는 실물사진이 수록된 국내외 서적과 일본국회도서관의 사진자료, 일본문화 정보사이트 등의 자료를 인용하여 江戶小袖 실물사진 90점과 미인화 40점을 분석하였다. <표 1>

시대적 범위는 일본의 江戶시대(1600~1868)로 한정하고 그 대상은 초기 慶長・寬永문화, 중기 元祿문화, 후기 化政문화기의 浮世繪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내용은 겉옷으로 착용한 小袖의 문양을 具象文樣, 抽象文樣으로 구분하여 특징을 살펴보고, 주로 사용한 문양의 종류와 표현방법, 구성방법 등을 분석하여 당시 유행한 문양 및 선호된 문양을 알아보았다.

<표1> 논문에 사용된 복식자료

구분	자료명	복식자료
江戶時代 實物資料	日本의 染織-小袖	20점
	日本의 染織-振袖	30점
	日本女性服飾史	20점
	日本美術名品	20점
	美人畵	40점

3. 연구결과

3.1. 문양의 종류

江戶시대 초기에는 식물문과 동물문을 조합한 자연의 풍경을 회화적으로 묘사한 자연문양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는 초기 정치적인 안정 위에 마련된 町人들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明曆3년(1657) 정월, 후리소데(振袖) 화재라 불리는 江戶의 大火災 이후 화재의 복구를 위한 幕府재정의 지출이 오히려 일반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게 되어 복식이 급속히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되었던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후기에는 기하문이 포함된 抽象文樣과 役

者文様이 많이 사용 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초, 중기 京都 문화의 영향을 받은 호화롭고 사치스러웠던 복식에 싫증을 느낀 町人들이 중시한 은근한 멋인 이키(粋)의 영향이 아닐까 한다.

3.2. 문양표현 방법

江戸 초기와 중기의 문양표현은 友禪染의 빈도가 높았는데 단독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자수와 함께 문양을 표현하는 병용법이 많았다.

풍경문을 소재로 많이 썼던 초기나 중기의 小袖에는 섬세하게 표현해야하는 문양의 특성상 동물이나 식물은 자수로, 크게 표현할 수 있는 배경이나 구름 등은 염색기법 중 友禪染의 방법으로 표현하여 문양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후기에는 홀치기염(絞染)의 하나인 鹿子染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小袖에 기하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표현하기에는 넓은 면적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友禪染보다는 鹿子染이 적합했다고 본다.

특히 깃이나 옷자락부분의 문양표현이나, 몸통의 식물문 중에서 작은 부분의 표현에 적합한 방법이라 여겨진다.

또한 홀치기염은 세탁이 용이하고 실용적이었기 때문에 서민들도 많이 사용하였으리라 본다.

型染은 江戸 중기부터 작은 문양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하나의 형틀로 문양을 찍어내기만 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서민들에게 많이 선호된 방법이었다.

3.3 문양구성

초기에는 전체를 동식물과 함께 풍경문양으로 표현한 慶長(37%)문양이, 후기에는 縞紋, 格子文을 통한 변화를 표현하는 段體구성과 帶의 변화로 옷자락 주변에 문양을 표현하는 裾(16%)문양의 사용도 두드러졌다.

江戸중기, 후기로 가면서 四方連續문양의 빈도가 급격히 높아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당시 많이 사용된 문양의 종류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江戸후기가 되면서 점차 기하문의 사용빈도가 높아졌고 기하문의 특성상 어느 한 부분에 포인트를 주는 구성보다는 전체에 문양을 표현하는 구성이 적절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후기에 사용된 四方連續문양(60%)은 앞에서 언급한 문양의 종류와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후기 小袖의 문양의 소재로 많이 사용된 것이 작은 면적보다는 큰 면적에서 많이 응용할 수 있는 기하문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표 2> 江戸시대 小袖에 나타난 문양특성(%)

문양 시기			초기	중기	후기
문양종류	具象文様	植物文	79	50	41
		動物文	4	8	5
		自然文	25	10	13
		道具文字文	16	2	7
	抽象文様	割部文	45	27	80
		役者文	2	3	7
문양표현	友禪染		74	12	16
	鹿子染		11	22	47
	型 染		13	38	41
문양구성	慶長文様		37	0	0
	寛文文様		6	0	0
	段文様		15	2	2
	肩裾文様		3	8	0
	腰高文様		9	11	10
	裾文様		3	13	16
	裏文様		0	4	3
	四方連續		15	40	60

참 고 문 헌

1) 박옥련・이행화・황정윤 편저(2006), 일본복식과 문양, 형설출판사,
2) 北村哲郎著, 이자연 역, 일본복식사, 경춘사
3) 국립중앙박물관(2002), 일본미술명품
4) 日本被服文化史, 元井 能著, 光生館(1994)
5) 長崎 巖(1993), 日本の 染織 ⑥ 振袖
6) 長崎 巖(1993), 日本の染織 ④ 小袖
7) 河上繁樹編(2004), 染織品の修理 日本の美術